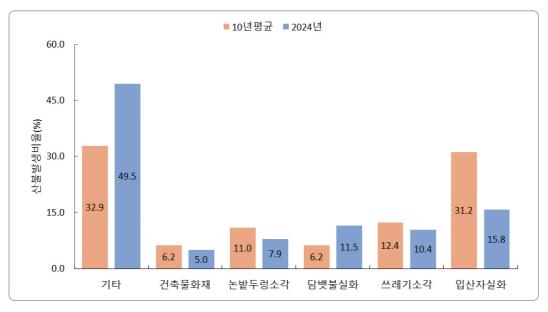
Q3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?

우리나라는 낙뢰나 마찰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산불은 거의 드물고,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합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 때문입니다.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.2%, 쓰레기소각이 12.4%, 논·밭두렁 소각은 11.0%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특히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 탓도 있지만, 겨우내 집을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, 혹은 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, 논·밭두 렁을 소각하는 행위 때문입니다. 산불 발생에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산림청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여 화기 소지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. 또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집중감시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

<최근 10년 평균 원인별 산불발생비율(%)>

※ 출처 : 산림청 산불통계